



조계종 포교원·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새싹 불자를 키웁시다' 연중 캠페인 '평가와 과제'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더 있길 바래”



권진영 동대부여중 교법사

미래 불교의 주역인 어린이, 청소년 포교를 위해 조계종 포교원과 현대불교신문사에서 '새싹 불자를 키웁시다' 연중 캠페인을 벌인 지 벌써 일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다. 우선 이 캠페인을 통해 불법포교의 가장 중요한 영역 중 하나인 어린이, 청소년 포교의 장에 교계 안팎의 관심과 지원을 일구어낸 공로에 대해 큰 감사를 드리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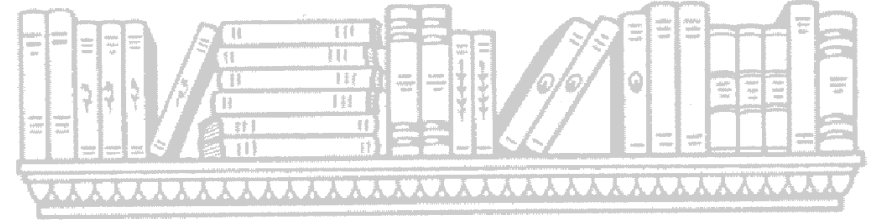
그동안 여러 후원자들의 공력으로 전국 모든 종립학교에 현대불교신문이 무상으로 보급됐다. 그 덕에 학급마다 둘러 앉아 신문을 읽는 학생들의 마음속에 불교의 정서가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된 것 같아 흐뭇하다. 특히 불교를 접할 기회가 없었던 학생이나 다른 종교를 믿는 학생들의 경우 연등축제나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다룬 기사, 불교환경운동, 불교사회복지사업 등의 다양한 기사를 접하고 나서 비로소 불교에 대한 개인적인 고집관념을 버리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생각한다.

눈속의 자신감 코너나 만화로 엮은 사상가들의 이야기, 그리고 청소년 상담의 이야기들은 교법사인 내 자신도 무척 관심 있게 읽게 됐다. 특히, 청소년 명상, 종교나 청소년 관련 통계, 청소년 법회의 우수사례, 행사나 유관단체의 근황 등은 내게 많은 정보를 주었고 동시에 큰 자극이 되어 왔다.

그리고 현대불교신문을 이용해 NIE(신문활용교육)을 해보았다는 교법사도 있었고, 불교 관련 사진·기사를 오려 학습한 경우성에도 응용했다는 답인교사도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번 연중 캠페인은 학교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한편으로 돌아보면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든다. 우선 불교 행사나 유관 단체의 소식을 제외하고 기사의 구성이 불교 청소년이라는 코드로 특화된 기사가 아닌 몇 가지 일반적 유형의 청소년 색선에 고정돼 왔다. 그런데 이것은 어린이, 청소년 포교의 획기적인 내용이나 포교 프로그램이 부족해 다양한 내용으로 지면을 충분하게 채울 수 없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 청소년 포교의 작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내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번 연중 캠페인을 계기로 좀 더 다양한 불교 청소년 실행프로그램, 심성프로그램, 상담프로그램, 관련 지도자 연수 등의 각종 어린이, 청소년 포교 정보가 넘쳐나서 서로 배우고, 격려하고, 용기를 얻어 전법의 의지를 불태울 수 있게 되기를 발원해 본다. 또한 이번 캠페인이 계기가 되어 과도한 입시경쟁과 물질만능주의 풍토, 그리고 가족해체 등의 가정문제 등등의 청소년문제를 야기하는 여러 환경에 대해 우리의 청소년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다양한 청소년 관련 기사를 지속적으로 실어주기를 기원한다.



이번 방학, 불교서적 어디?

어린이청소년 방학특집 2-어린이청소년 불서 추천



방학을 맞아 '책'을 읽어보라고 결심한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기왕 읽을 것, 맑은 이야기로 엮어진 책을 읽어보면 어떨까. 책을 읽으면서 마음이 닦고 문화적 소양도 쌓을 수 있는 길이 있다. 바로 '불서(佛書)'를 통해서다. '불서'란 부처님과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모든 책을 뜻한다. 지금까지 '부처', '깨달음' 등에 대한 단어에 선입견이 있었거나 조금 더 알아보고 싶은 사람, 또는 불교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 종교인지 알거나 봐야겠다는 사람 모두 다 여기 주목-- 또 '지루하고 딱딱한 건 질색이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어린이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게 나온 불서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불교에 재미있는 이야기거리가 얼마마나 많은지 알게 될 것이다. 불교계 출판사들이 추천한 어린이 불서들을 소개한다.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추천불서

《옹달샘과 아기 스님》 이한중(공소담이) 아기자기하고 예쁜 이야기들로 어린이들의 마음을 맑게 꾸며주는 이야기다. 어느 산 중턱 작은 절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담았다.

《누가 아기 석가모니로 태어났을까》 하종오(문화동네) 어린이 불경동화 시리즈 중 첫 번째 권. <육도집경>에 실려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과 탄생 설화를 담고 있다. 불교에 대한 이해가 없는 어린이들도 접근할 수 있도록 쉬운 표현으로 글을 썼다.

《스님은 황금을 메고 어디로 갔을까》 김영만(다림) 각 종교마다 그에 맞는 예의가 있다. 절에 들어서면 부처님께도 스님들께도 합장 반배로 인사하는 것이 불교의 기본 예의다. 이 책에서는 바로 이런 불교의 예절상식을 단편 동화들로 쉽게 설명했다.

《꼬마들부처》 하오 광자(이예림당) 반개 맞은 돌에서 태어난 돌부처의 이야기가 유쾌하다. 서정적이고 따스한 색깔을 살린 그림이 잘 어우러져 책을 읽는 어린이들에게 교훈을 일깨워 준다.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 추천불서

《틱낫한 스님이 들려주는 마음속의 샘물》 틱낫한 스님(계림복스물) 세계적인 지도자로 추앙받고 있는 틱낫한 스님이 어린이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틱낫한 스님이 처음으로 부처를 만나게 되는 어린 시절의 이야기와 담담한 수채화가 함께 어우러진 그림책이다.

《엄마따라 절에가기》 김광호(해솔출판사) 제목은 가볍지만 내용이 꽤 방대하다. 절에 가면 신기한 것들이 많다. 사찰 구조도 그렇고 예 합장 반배를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다. 이런 것들이 언제 어렵기만 할 때 쉽게 설명해 주는 참고서 같은 책이다.

《만화로 보는 어린이 법구경》 김영만(바른사) <법구경>의 명사들 가운데서 어린이들에게 꼭 권하고 싶은 것들을 골라, 한 편 한 편 원문과 해설을 실었다. 또한 그 시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재미있는 만화를 곁들였다.

#청소년 추천불서(중~고등학생) 추천불서

《선사들의 공부법》 김현세(문자창) 공부 방법을 정하지 못해 고민인가. 그렇다면 공부를 많이 한 스님들의 이야기를 참고해 보자. 만화로 꾸며져 있어 읽기도 한결 쉽다. 우리 시대에 맞는,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의 공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터.

《별처럼 사는 법》 이사위(우리출판사) 불자 전문학자 이사위 박사가 법과 인간의 이야기를 담아 풀어냈다. 혹 전문학자를 꿈꾸는 청소년이 읽는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저자는 각자의 마음속에 별을 하나씩 갖기를 권한다.

《하룻밤에 읽는 불교》 소은 스님(랜덤하우스중앙) 조계종은 어떻게 생겨난 종파일까. 불교는 어떻게 흘러왔을까. 불교 용어에서부터 현대 불교 종파, 일본불교, 불교역사까지 한 권으로 볼 수 있다.

《부처님과 보살 재미있는 이름 이야기》 이윤수(민족사) 각각의 부처님과 보살, 나한, 10대제자 등 경전에 나오는 인물 중심으로 이름 뜻과 일화를 소개하는 책. 이 책을 읽고 절에서 누가 어떤 분인지 찾아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가침없이 빠져드는 역사이야기(禪)》 황푸자(이시그림북스) 우리나라 불교가 아닌 중국 불교가 궁금하다면 이 책을 읽어보자. 중국 선종의 역사와 문화를 그들에 대한 일화를 통해 다가가 볼 수 있어 좋다. 김영진 기자

세계인의 건강을 생각하는 돌침대, 흙침대 전문기업

(주)장수구들이 만든

www.geubooki.co.kr 한글도메인 | 거북이표건강침대, 장수구들



장수하는 거북이

옥돌침대 흙침대

'불기 2551년, 불자님 성불하십시오.' - 불자기업이 만듭니다.

인기 상품

422 로채Q (황토흙)

인기 상품

304 목련Q(음수목)

특별가 235만원

424 비토Q (황토흙)

특별가 199만원

303 피아노Q(홍맥반석)

천하를 얻고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허리가 아프신 분이나 따뜻한 아랫목을 그리워하시는 스님이나 부모님께 건강침대를 선물하세요



서울본사전시장 412-2574~5(대)

가리산점 가리APT 영미촌 특화점

하남물류전시장 (02) 3402-2520

울림택시수준 APT 한미단지 가이점 양민점

전국무료배송 (도시지역제외/배송비 별도)

강릉점 (033) 651-5223

대구점 (053) 586-0202

제주점 (064) 743-2366

취급점 및 대리점모집 02)487-1097

본사에서 직접 소비자님께 배송해 드립니다.